현지 실사·PT 호평 불구 스포츠 외교력 한계

〈프레젠테이션〉

■동계오륜 평창 유치 실패 왜

이건희·박용성 위원 등 비리 연루 활동 위축

'포스트 김운용 시대' 준비 부족도 실패 요인

"역대 다섯 번째로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올해 '빅3 스포츠 행사' 국내 유치라는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었는데…"

평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은 5일(한국시간) 과테말라시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차 투표 끝에 소치(러시아)에 역전패,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가 무산되자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유치에 성공했다면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일본에 이어 하계올림픽과 축구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다섯 번째 국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차 투표에서 소치에 2표를 앞서고도 2차 투표 결과, 47-51로 뒤집혀 2003년 프라하 IOC총회에 이어 두 번 연속 미역국을 마신 건 세계무대에서 입지가 줄어든 스포츠 외교력의 현주소다.

인천, 대구의 드림 프로젝트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가들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위원에게 통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선 총력전에도 평창은 IOC 표심을 사로잡지 못했다.

평창 유치 실패는 스포츠 외교력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10여년간 국제 스포츠계 '슈퍼파워'였던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이 논란 속에 물러난 뒤 한때 IOC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이사회 의장은 기업 비리에 연루돼 스포츠 외교활동이 크게 위축됐었다.

동계올림픽 유치캠페인을 계기로 활동폭을 넓힌 이건희 회장과 IOC위원 자격정지를 받았다 13개월 만에 복권됐던 박용성 의장이 뒤늦게 힘을 보탰지만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부동표를 끌어 모으지 못했고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아시아권 표까지 잠식됐다는 패인 분석이 나왔다.

'포스트 김운용시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슬픈 현실인 셈이다.

현지 실사와 IOC 집행위원회 조사 평가보고서, 개최지 결정의 최종 관문인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평창. 그럼에도 한국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재수에 실패해 무너진 스포츠 외교력을 어떻게 재건할지가 숙제로 남게 됐다.

소치 공세에 텃밭 표까지 잠식당해

〈亞·阿·중남미〉

평창의 '무결점 행보'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좌초했다.

평창의 패인은 결국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2차 투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전략적 실패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소치의 저돌적인 로비전에 반드시 사수했어야 할 오랜 텃밭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표심'을 잠식당한 탓에 격차를 벌리지 못해 2차 투표에서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하지만 명분과 당위성, 유치 계획 등 모든 기준에서 앞섰던 평창이 특정 인사와 거대기업을 동원한 로비에 밀렸다는 점에서 이번 유치전은 한동안 논란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외형상 2차 투표 대비 부족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풀이된다.

평창은 2차 투표에 좀 더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어야 했다. 평창은 1차 투표에서 36-34로 소치를 근소하게 앞섰고 잘츠부르크가 25표를 얻었다.

탈락한 잘츠부르크에 몰린 표가 적지않았던 점에 비춰 '최대 승부처'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표심의 향방'이었다.

평창은 잘츠부르크와 소치가 유치전 내내 으르렁거리며 악성 비방전을 펼쳐 2003년 프라하 총회에서 당했던 것처럼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설마했는데…"교민·강원도민 등 망연자실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다.'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입에서 '평창' 대신 '소치'가 호명되자 과테말라시티 내 홀리데이인 호텔 상황실에서 마음을 졸이며 TV 스크린을 지켜보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은 모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데다 결선투표로 갈 경우 유럽표 흡수로 러시아 소치보다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던 터라 그 상실감은 더했다.

유치 도시 발표 직후 '성공 문서' 대신 빈 손으로 유치위 프레스센터에 들어선 한승수 유치위원장,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김진선 강원지사는 국민, 특히 강원도민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으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유치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원정응원을 온 340여명의 강원도민과 과테말라 현지 교민들도 허탈감에 빠졌다.

/과테말라시티=연합뉴스

과테말라에서도…평창에서도 좌절의 눈물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오후 (한국시각 5일 오전) 과테말라시티 평창유치위 숙소인 홀리데이인 호텔을 방문, 평창 서포터즈를 위로하고 있다.〈왼쪽〉 5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청 앞에서 응원중이던 초등학생들이 유치 실패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과테말라시티·평창=연합뉴스

베트남 한국인 관광가이드 16명 추방

강제 쇼핑·바가지 요금에다 불법행위까지

베트남 정부는 불법으로 영업을 한 한국 관광가이드 16명을 추방했다고 베트남뉴스가 4일 보도했다.

베트남 관광총국의 팜 후잉 꽁 감사실장은 "지난 5월 일제단속 결과 불법 관광가이드 영업 40건을 적발하고 한국인 관광가이드 16명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꽁실장은 조사결과 "한국인 관광가이드는 다른 영업을 핑계로 입국해서 한국여행사의 대표사무실 형태로 영업을 해 왔으며 일부 유학생들도 가이드 영업을 해 왔다"며 "베트남 법률상 베트남인만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며 불법소득을 얻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관광총국은 또 "일부 가이드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강제쇼핑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웅담, 노니쥬스 등 을 턱없이 비싼 값에 판매했으며 감사가 실시되는 도중에는 감사를 방해하고 극소수는 관광객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는 지난 5월 현재 500여명의 한국인 가이드들이 연간 40~50만명의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총국의 팜 뜨 부총국장은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가이드들이 필요한데도 베트남의 법에는 외국인 가이드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베트남에 거주하며 베트남을 잘 아는 한국인들이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여행업과 가이드업을 할 경우 적절한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노이=연합뉴스

6자회담 조기 재개 논의

한·중 6자수석대표

한국과 중국은 6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2·13 합의의 신속한 이행 방안과 차기 6자회담 개최 일정 등을 협의한다.

외교통상부는 5일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오후 베이징으로 출국, 내일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날 예정"이라며 "천 본부장과 우 부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2·13 합의의 신속한 이행 방안 및 차기 6자회담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본부장과 우 부부장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 착수시점에 맞춰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뒤 이어 열릴 6자 외교장관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 등을 협의한다.

두 사람은 초기조치 이행 후 다음 단계 과제인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유 6천 200t 내주 첫 북송

지원업체 SK에너지 선정

북핵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를 이행하는데 맞춰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중유 5만t 중 6천200t이 내주 첫 지원된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중유를 수송할 첫 배는 울산에서 선봉으로 6천200t을 싣고 떠날 것"이라며 "약속한 14일까지는 첫 항차 출발에 문제가 없다고 현재로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중유 지원 비용과 관련,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추가의결 금액은 67억원"이라며 "지난 번 해지 발생금 22억원과 중유 값 상승분 25억원, 중유 가공시 추가분 20억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부대비용 합쳐 260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간내 중유 공급가능성 ▲중유 생산능력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북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유 지원 업체로 SK에너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中 번시에서 노래방 폭발 25명 사망

4일 밤 8시50분께 중국 랴오닝성 번시시 톈스푸진의 한 노래방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했다고 중국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랴오닝성과 번시시 정부 간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달려가 무장경찰, 공안, 의료기관 합동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부상자 치료 등 사고수습에 착수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리커창 랴오닝성 서기와 장원웨 성장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특별 지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번시시에는 유명한 관광명소인 수중동굴이 있어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잦은 곳이다.

이와 관련,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인 사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선양=연합뉴스